

SIMPAC

2024 VOL. 58



B E T H E B E S T

SIMPAC STORY MAGAZINE

CONTENT

2024
VOL. 58



생각을 여는 하루

- 04 스페셜 테마
BE THE BEST
- 06 테마 인사이드
나만의 고유한 핵심 강점으로 승부하라!
- 10 멘토링 클럽
선배가 신입사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In SIMPAC글로벌 스크랩부문 대구센터
- 14 팀빌딩 워크숍
나도 알고 동료도 알아가는 시간,
‘에너지그림 성격유형검사’
In SIMPAC 메탈부문 포항1공장
- 18 심팩 한 컷
심팩인의 일상 한 컷
- 20 프라이빗 클래스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스피치 전략
In SIMPAC 프레스부문

함께 뛰는 심팩

- 26 현장 속으로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 32 심팩 인사이드
2024년 신규 입사자 입문교육
- 36 ZOOM IN
· 신규 계열사 소개
- 케이디에이
- SIMPAC아틀리에
- SIMPAC글로벌 동부
· 2024 SIMPAC Special Day 송년 행사 성료
- 42 NEWS
뉴스 단신

마음을 나누는 우리

- 46 찾아가는 클래스
내 손 안의 작은 정원,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In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부문
- 50 심팩인 플레이스
겨울 축제에서 겨울을 만끽하다
- 52 안전한 하루
방심은 금물! 끼임 사고 예방하기
- 54 복클럽
발전하는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추천 도서
- 56 TREND
‘텍스트럽’, 책 읽는 당신이 힘나다!
- 58 우체통
독자 참여 이벤트



통권 58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SIMPAC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4층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사보 담당자
(주)SIMPAC 기획관리부문
이도영 매니저 02-3780-4923
dylee@simpac.com

(주)SIMPAC 프레스부문
남윤기 매니저 032-510-0024
yknam@simpac.com

(주)SIMPAC 메탈부문
조솔범 매니저 054-271-8725
sbcho@simpac.com

(주)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부문
최한나 매니저 032-590-8905
hnchoi@simpac.com

(주)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임현 매니저 061-792-8817
hyunlim@simpac.com

(주)SIMPAC글로벌
조지은 매니저 053-585-9782
jejo@simpac.com



SIMPAC은 언제나 최고를 지향합니다

국내 금속성형 기술의 선두주자인 SIMPAC은 세계 최고의 프레스 제조 업체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폭넓은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SIMPAC은 국내 최초의 합금철 생산 전문회사로 글로벌 합금철 전문 기업으로 도약 중입니다.

SIMPAC은 제품, 서비스, 공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우수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품질 경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SIMPAC은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로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개선활동을 통해 “The First, The Best SIMPAC”을 목표로 세계 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객 중심 품질 관리 체계, ‘제로-결함’ 품질 관리를 통한 최고의 품질 제공,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 유지의 경영 이념을 지키기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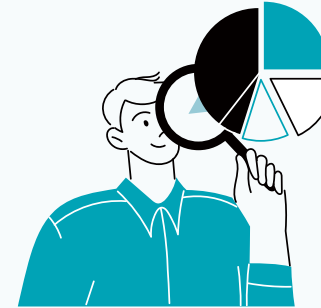
언제나 최고를 지향하는 SIMPAC의 오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확인해주세요.

나만의 고유한 핵심 강점으로 승부하라!

약점만 보완하다가 평범해질 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도화된 지식사회이자 세분화된 직업사회다.
이런 시대일수록 약점 보완보다 강점 강화가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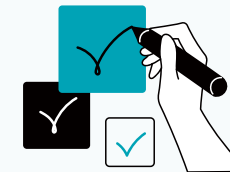


강점 대신 약점 보완을 강조하는 현실

교육학자 R.H.리브스의 '동물학교 우화'는 약점 보완보다 강점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한다. 동물학교에서는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가 필수 과목이다. 오리는 수영에서 1등이었지만 달리기와 오르기에서 낙제했고, 보충 수업을 하다 물갈퀴가 닳아 결국 수영도 망쳤다. 토끼는 달리를 잘했지만 수영 수업에 매달리느라 달리기조차 못하게 되었다. 최우수 졸업생은 모든 과목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과락이 없던 뱀장어였다.

이 우화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보다 약점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 잘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평범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예체능에 소질 있는 학생이 학업 때문에 예술적 재능을 잃거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아이들이 점수 맞추기에 갇히는 사례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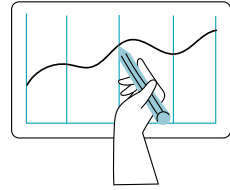
강점 중심으로 재편하는 삶의 필요성



수동적인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어진 일에만 매달리며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약점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나만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방법



1. 과거에서 강점을 찾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기록해 보자. 필자는 어릴 적 TV 프로그램 내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는 지금의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발전했다. 과거에 성과를 냈던 경험이나 몰입했던 순간을 찾아 그때 발휘한 강점을 분석해 보자.

2.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견하기

강점은 때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험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필자는 취업이 어려웠던 시절 영업 분야에 뛰어들어 고객 설득과 협상 능력을 발견했다. 다양한 분야에 자신을 노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꾸준함으로 강점 만들기

좋아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반복한 일에서 강점이 발현될 수 있다. 필자는 20년간 취업과 진로 분야에 종사하며 커리어 전문가로 자리 잡았는데, 반복된 경험 속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4. 타인의 피드백으로 강점 이해하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자. 필자는 '잔소리'라는 단점을 코칭 능력으로 전환했다. 타인의 객관적 시선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강점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강점을 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이다.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자신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성과를 냈는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면의 신호를 인식하고, 고유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점을 탐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다.

strong point

강점 탐색을 위한 7가지 구체적 방법



1. 잘하는 것을 나열하기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기 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잘하는 것을 최대한 나열해 보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가장 강력한 핵심 강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정관념 깨트리기

자신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부여하지 말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질문법 활용하기

질문은 강점을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다.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보자.

4. 약점에서 강점으로 전환하기

약점에도 긍정적인 면이 숨어 있다. 이를 강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보자.

5. 인터뷰 기법 활용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물어보고,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구체화해 보자.

6. 검사 도구 활용하기

‘스트레스 파인더’와 같은 강점 탐색 도구를 활용해 본인의 강점을 탐색할 수 있다. 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유용하다.

7. 산맥 타기 기법

자신의 인생을 그래프로 표현하며 중요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 속에서 강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만의 강점으로 인생을 설계하라!

피터 드러커는 “약점 보완보다 강점 강화가 더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경력과 삶을 설계할 때,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답을 찾아보세요.

선배가 신입사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In SIMPAC글로벌 스크랩부문 대구센터

SIMPAC글로벌은 철스크랩을 관리·공급하며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철스크랩 시장은 고철을 얼마에 매입하고 구매처 및 매출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 직원들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되기에 꾸준한 학습과 자기계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번 호 '멘토링 클럽'을 통해서는 SIMPAC글로벌 스크랩부문 대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선배 천영찬 매니저와 신입사원 윤준현, 현윤환 매니저가 멘토-멘티로서 서로 궁금했던 점부터 전해주고 싶은 조언까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멘티: 생산팀 윤준현 현윤환 매니저

2024년 9월 입사한 신입사원 동기, 고철 검수를 담당하고 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매일 질문이 넘쳐난다.

멘토: 영업팀 천영찬 매니저

고철 경력 13년차로, 2024년 5월 SIMPAC글로벌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철스크랩의 구매부터 구매처 방문 및 관리, 매출처 발굴 및 관리, 클레임 대응 등 전방위적 역할을 하고 있다.



Q. 천영찬

생산팀 검수 담당으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어땠나요? 생각과는 달라서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윤준현: 생각보다 고철의 종류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어서 검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입고 시 비철, 분철, 타이어 등 제외 품목이 섞여 있으면 불가피하게 감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품 기사님에게 합당한 근거를 들어 감량 이유에 대해 설득해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현윤환: 철스크랩 업계는 처음이고, 기존에 있었던 직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모든 게 새롭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 부딪혀 가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천영찬

일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을까요?

윤준현: 고철을 분리수거해서 내놓으면 재활용 된다는 사실이야 알고 있었지만, 입사 전에는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철스크랩 업무를 하게 되며 고물상이나 철거 현장 등에서 들어온 고철들이 선별 및 압축 과정을 거쳐 철스크랩으로 재탄생하여 제강사로 납품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현윤환: 저는 검수라는 과정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궁금했습니다. 검수를 통해 고철의 품목, 두께 등을 구분하여 등급 기준표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등급에 맞지 않는 것들은 퇴송(退送)시키는 등의 과정이 신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모로 새롭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Q. 현윤환

오랫동안 고철 분야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노하우, 그리고 이 일을 하며 명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천영찬: 고철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서 쓰이다 보니 꾸준한 배움이 필요한데요.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고철 선생님이 되어줄 테니, 저나 다른 선배들에게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찾아와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업무 능력이 시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고 느끼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사내 야드, 철거 현장, 폐차장, 고물상 등 고철 발생처를 돌면서 최대한 여러 고철들을 자주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업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나를 찾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윤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지는 않지만 제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편이라, 빨리 업무를 터득해 조금이나마 회사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께 업무와 관련하여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저런 스킬들에 대해 자주 질문하고, 검수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사진을 찍어서 여쭙 보기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윤준현

선배님께서는 신입 시절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천영찬: 있는 그대로 말하고 꾸중 듣고 그랬죠(웃음). 저도 사람이니 꾸중 듣고 지적당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때를 돌이켜 보면 실수가 약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철의 종류와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처음부터 다 알 수 없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접해볼 수록 실력이 늘기 마련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됩니다.

Q. 현윤환

선배님께서는 어떨 때 일의 보람을 느끼시나요?

천영찬: 회사가 성장했다는 것이 확실히 보일 때, 목표로 한 수치를 달성했을 때, 예전에는 해내지 못했던 것을 해내게 되었을 때, 실적과 더불어 나 스스로의 성장이 확실히 느껴질 때 보람을 느낍니다.



Q. 윤준현

사회생활을 하며 이 점은 꼭 유념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천영찬: 어느 회사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다 어렵고 힘들고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만 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 거죠. 그리고 철스크랩 산업은 업&다운은 있어도 인류가 있는 한 영원불멸한 산업이니 업계에 대한 불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간다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Q. 현윤환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천영찬: 일단은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앞으로 해외 거래처와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영어 공부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천영찬

마지막으로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윤준현: 아직 실수가 잦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 질문도 많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제가 업무 내용을 열심히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윤환: 고철 업계가 아직까지 많이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인 편인데,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잔 실수가 있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천영찬: 일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속으로 참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간다면 결국 웃을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SIMPAC글로벌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직장인 라이프 문답!



나에게 고철 업계는 아직 어렵다



천영찬: 경력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새롭게 익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SIMPAC글로벌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 회사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현윤환: 아직은 초반이라 업무 내용을 무조건 익혀 나가자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윤준현: 저는 뭐든지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적어 놓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찾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천영찬: 일을 하다 보면 밀리는 업무가 있기 마련이라, 놓치지 않고 처리하려면 체크리스트를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완료한 업무는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지요.

회사 생활을 하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



천영찬: 스트레스가 큰 업무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엔 육아로 바쁘긴 하지만 전에는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요새는 업계 분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조용한 장소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 맛집 탐방, 여행, 수면 등 스트레스 해소처를 마련해 두기를 추천합니다.
또 일이 힘들고 답답할 때는 회사 내의 편한 장소에서 잠시 쉬며 기분 전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윤준현: 저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거나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현윤환: 평일에는 퇴근하고 나면 힘들어서 일찍 자는 편이고, 주말에도 밖에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도 알고 동료도 알아가는 시간,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In SIMPAC 메탈부문 포항1공장

메탈부문 포항1공장 대회의실에서 8인의 직원들이 함께한 특별한 워크숍이 열렸다. 사전에 실시한 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 자신과 동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유쾌한 현장을 들여다본다.



성격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이란 숫자 9를 뜻하는 ennea와 도형을 뜻하는 gram의 합성어이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장(본능) 중심, 가슴(감정) 중심, 머리(사고) 중심의 3가지로 나누고 이를 또 다시 3가지로 구분하여 총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9가지 성격 유형은 우측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도형으

로 표현한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본인의 노력이나 현재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화살표의 순방향(퇴화방향)에 해당하는 성격 유형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반대로 화살표의 역방향(성장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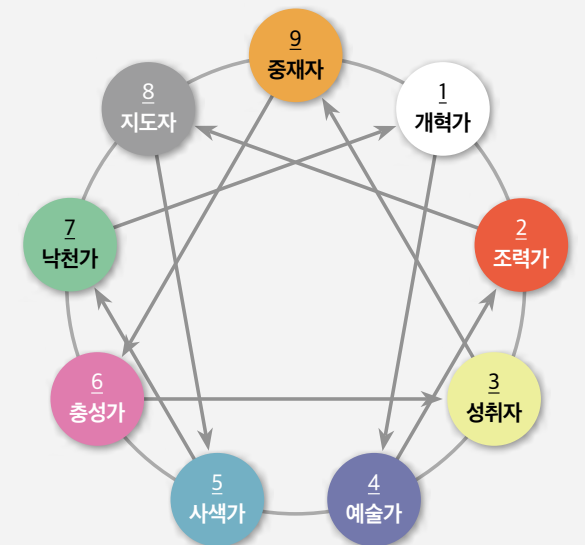
가슴 중심 1명 & 머리 중심 7명의 성격 유형별 특성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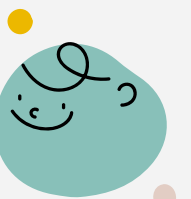
검사에 참여한 총 8명의 직원 중 5명이 6유형(충성가), 2명이 5유형(사색가), 나머지 한 명은 2유형(조력가)이었다. 5유형과 6유형은 같은 머리 중심의 성격인데 반해, 2유형은 가슴 중심의 성격이라 서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 ‘혼자 여행을 가서 호텔에 묵던 중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릴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황’이 중요한 머리 중심 유형(5, 6유형) 직원들은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119에 전화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반면, 먼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가슴 중심 유형(2유형)의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응급처치 등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답변했다.

2유형(조력가)은 도움을 주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부터 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사고하는 편이다. 정이 많고 타인을 돕는 일에 만족감을 얻는 특성이 있으나 소유욕이 강한 편이다. 마음이 넓고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기분을 잘 이해하며,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해 적응력이 뛰어나다. 매사에 열중하는 타입이지만 안 좋은 특성이 강조될 경우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반대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을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타인을 위해 한 일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의 동료와 일할 때에는 도움을 받은 만큼 감사의 인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에니어그램에서의 성격 유형 구분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에서 ‘힘의 중심’에 따른 성격별 특성

구분	가슴 중심(2,3,4 유형)	머리 중심(5,6,7 유형)	장 중심(8,9,1 유형)
관심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미지	전략과 신념, 정보 수집 및 문제 해결	환경 변화 및 통제
고민	정체성, 타인의 적대감	불안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	분노와 억압
추구가치	주변에 관심, 보살핌	안전하고 체계적인 상황	독립성, 자율성
감정	부끄러움, 자괴감	공포, 두려움	분노, 억압에 대한 반감

5유형(사색가)은 조용히 혼자 탐구하는 특성이 있다. 지적이고 분석적이라 통찰력이 강하나 약간은 과짜스러운 면도 있다. 뛰어난 관찰력, 적은 말수, 조심스러운 성향, 정보 수집에 몰두, 고독을 즐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고집이 세고 감정 표현이 적으며 지나치게 내향적인 부분이 단점이다.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업무 진행 시 먼저 정보를 습득한 후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 때문에 조금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일처리를 잘 해내는 편이니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5유형들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관심과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통하는 데 있어 서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유형들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드러내고 타인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6유형(충성가)은 직장 생활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안전함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어 공동체에 충성심을 가지고 헌신한다. 신중하고 솔직하며 협조적이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타입이다. 다만 경계심이 강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불안감이 높은 등의 단점이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틀을 벗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뢰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어떤 일이든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편이다. 이들은 일에 무리하게 집착하고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하는 경향이 있어 타인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신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노력한다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활발한 대화 통해 나와 동료들을 이해하는 시간

유형별 설명을 들은 경영지원2팀 조솔범 매니저(2유형-조력가)는 “5유형이나 6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2유형에 대해 설명하시니 딱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들도 검사 결과가 깊이 있고 실제 본인의 성격과 잘 맞는 것 같으면서 연신 ‘맞아 맞아’를 외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본인의 대표 특성 뿐 아니라 어떤 보조 특성(날개)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각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강사의 해석을 들을 수 있었다. 유형별 성격에 대한 해석에 더해 개선점까지 알려주니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또한 각자 활동지를 작성하며 본인의 성격적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카드를 뽑아 유형별 상징 동물 및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나와 타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타인에게 원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성격적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유쾌한 워크숍이었다.



워크숍 참여 후기

이번 팀빌딩 워크숍에서는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성격적 차이를 이해하며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성격 유형을 주제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 직원들! 이날의 대화는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소중한 자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충성가
합금철사업팀
김현정 매니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약점을 알게 되어 신기했고, 예시를 들어 개선책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안함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으며, 앞으로 생활하는 데 오늘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사색가
안전팀
강광근 매니저

나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해당 유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 나와 비슷하여 신기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았으며,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조력가
경영지원2팀
조솔범 매니저

스스로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동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서로의 성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6
충성가
생산지원팀
김동진 매니저

나 자신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제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5
사색가
생산팀
이상인 매니저

동료들의 성향을 확인하고 서로의 공감대, 차이점, 성향에 따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대화를 통해 알아 나가는 과정이 매우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6
충성가
생산팀
정용완 매니저

에니어그램을 통해 나 스스로와 동료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서로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며 재미있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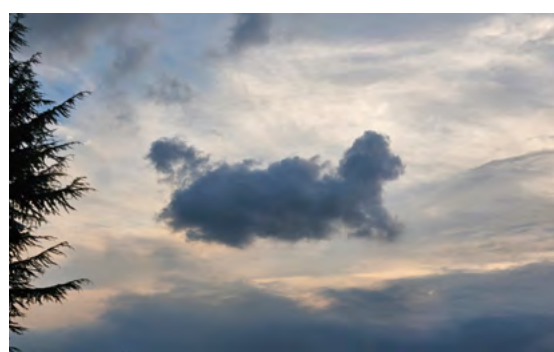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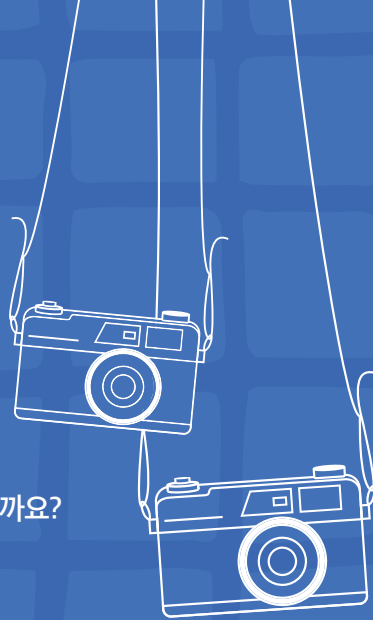


6
충성가
생산팀
배진경 매니저

새로운 성격유형검사를 해 볼 수 있어 신기했습니다. MBTI 검사보다 나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아서 강의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됐고,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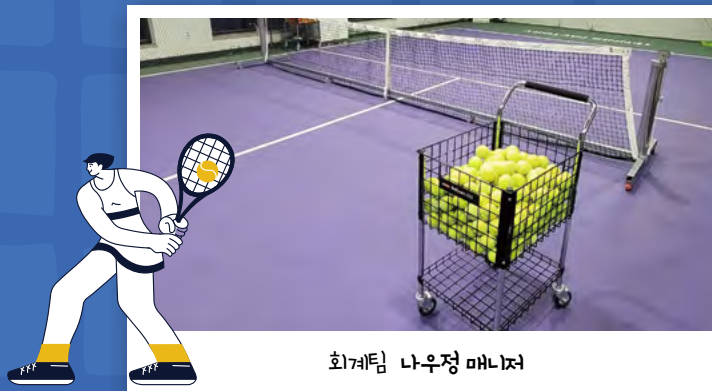
심팩인의 일상 한 컷

심팩인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심팩인들의
일상 속 한 장면을 공유합니다.



리스트랙비즈 경영지원팀 이혜진 매니저

퇴근 후 회식 장소로 가던 길이었는데,
하늘을 보고 기분 좋게 회식할 수 있었어요!
다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눈엔 땡땡이네요 🐱



회계팀 나우정 매니저

퇴근 후 테니스 레슨 시작!



메탈부문 포항2공장 함선옥 매니저

제가 직접 글씨를 쓴
캘리그래피 에코백입니다.



기계설계팀 이정우 매니저

2024년 첫 눈이 온 날!
기계설계팀, 품질팀, 생산팀이
점심 시간에 추억을 쌓았습니다.



생산팀 김수민 매니저



생산팀 조립2반 박지훈 주임

열심히 준비하여 바디 프로필을 촬영했고,
WNGP 대회에서 인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금팀 김소형 매니저

퇴근 후 동네 농구 동호회에서
농구를 하고 동친들과 인증샷 🏀



PI팀 이규현 팀장

2024 춘천마라톤 풀코스 완주!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스피치 전략

In SIMPAC 프레스부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 ‘프라이빗 클래스’ 시간에는 평소 고객사를 대상으로 스피치할 일이 많은 프레스부문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자동화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스피치 스킬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따사로웠던 어느 가을날, 본사 3층 교육장에서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클래스가 열렸다. 이날 강의에는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스피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 프레스부문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자동화팀 소속 직원 15인이 참석했다. 스피치 전문가 노지선 강사가 함께한 가운데, 영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스피치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 2시간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간중간 다 함께 예문을 따라 읽어보며, 어떤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입찰 프레젠테이션 준비 전략.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자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쟁사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경쟁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발표 스킬이 중요하다.

일단 제안서를 만들 때에는 가능한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고, 발표 자료를 직관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발표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웬만해서는 발표 3일 전까지는 내용을 픽스하여,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표할 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여러 차례 충분히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자의 역할은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 회사의 강점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정리해 상대가 듣고 싶어하도록 발표하는 것이다. 경쟁사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강점을 고객사의 비전이나 핵심 이슈와 연결시킴으로써 단순히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통해 고객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등을 조절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발표를 할 때 말의 내용만큼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도 중요하다.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뉘앙스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1. 말하는 내용, 목소리, 표정이 일치해야 한다. 웃는 톤, 진지한 톤, 부드러운 톤 등 상황과 내용에 맞는 표정과 자세를 연출해야 한다.
2. 청중을 무의식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사를 할 때는 미소 짓는 얼굴로 목소리에도 웃음을 머금는다.
3. 배에 힘을 주며 ‘공명’하는 소리를 내야 말의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말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 공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연습을 하자.
4. 나에게 맞는 목소리 톤을 찾는다. 말을 할 때 후두가 움직이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구간이 어디인지 찾아 연습을 통해 목소리를 정리한다.
5. 입모양을 크게 하면 발음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된다. 흘리는 발음 없이 어미까지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연습한다. 빨대를 물고 거울을 보며 발음을 연습하고, 이를 녹음해 들어보자.
6. 발표 연습을 녹음해 들어보고 말 사이에 ‘음’, ‘아’ 등 불필요한 표현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말이 너무 빠르다면 천천히 속도를 조절한다.



말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강조법’

크게 강조

중요한 부분을
크게 말한다

약하게 강조

중요한 부분에서
힘을 빼고 약하게 말한다

천천히 강조

중요한 부분에서 말하는
속도를 느리게 해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포인트 강조

중요한 부분의
음절을 하나하나
살려서 말한다

눌임 강조

‘엄청~난’과 같이
중요한 부분을
늘여서 말한다

멈춤 강조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말을 잠깐 멈춤으로써
집중하게 한다

발표에 임팩트를 주려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짧은 시간 내에 평가단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오프닝에 임팩트를 줘야 한다. 오프닝에서는 미소와 함께 청중들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고, 발표 내용과 관련된 명언, 시사 이슈, 트렌드, 에피소드, 사진 및 영상 자료, 퀴즈 등을 활용해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때 퀴즈는 주관식보다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객관식 질문을 통해 화두를 떠올리게 유도해야 한다. 발표 중간중간 청자와 눈을 마주치고, 제스처를 사용하는 등의 비언어적 연출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사람이 평가하는 만큼 발표를 마무리할 때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발표 내용과 연관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감동과 여운을 주는 것이 좋다.

발표 시 활용 가능한 비언어적 연출

동선 활용

단상 앞에 가만히 서서 말하기 보다는 중간중간 자리를 옮겨가며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제스처 활용

내용과 맞는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달력을 높인다.

시선 활용

청자들과 골고루 시선을 맞춰가며 이야기한다. 또한 눈을 깜빡이거나 굴리는 등 불안정해 보이는 시선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질의응답 테크닉

질의응답을 받을 때는 내용을 받아 적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확인하며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



비즈니스 스피치 클래스 수강 소감



강원상 매니저

국내영업팀

영업활동 중 스피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스토리텔링 및 발성 그리고 오프닝에서 엔딩까지 고객의 공감과 설득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강의였습니다.



고석지 매니저

국내영업팀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고, 녹음을 해서 들어봐야 남이 듣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해 가며 스피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덕 매니저

국내영업팀

발표자(회사)의 강점을 고객의 이슈와 연계해 발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 제스처 사용법, 시선 처리법 등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를 조합하여 스피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혁 매니저

국내영업팀

대화 및 발표 시 안정적인 목소리 톤, 효과적인 표정 짓기와 제스처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환승 매니저

국내영업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클래스였습니다. 더불어 표정과 제스처를 활용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스피치가 가능함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혜 매니저

국내영업팀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교육이었습니다.



박경현 매니저

해외영업팀

말의 속도, 억양, 그리고 제스처에 따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상욱 매니저

해외영업팀

그동안은 틀에 박힌 방법만으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 및 제품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승진 매니저

해외영업팀

말을 할 때 목소리, 내용, 표정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시영 매니저

해외영업팀

향후 고객사 방문 시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금일 수업 내용을 토대로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혜린 매니저

해외영업팀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스피치 스킬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셔서 와닿았습니다.



이지호 매니저

해외영업팀

회사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 미팅하고, 회의하고, 제안할 기회가 많은데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우고 느낀 점을 연습하고 살려서 더 인상 깊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환 매니저

해외영업팀

발표에 있어서 발음과 강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를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탁 매니저

자동화팀

내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 발표를 해야 하는데, 표정이나 적절한 제스처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원근 매니저

자동화팀

효과적인 스피치를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은 강의였습니다. 특히 말할 때의 강조법과 제스처 활용법, 프레젠테이션의 오프닝과 클로징 전략에 대한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유익한 조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데일 카네기



함께 뛰는 심팩

26

현장 속으로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32

심팩 인사이드

2024년 신규 입사자 입문교육

36

ZOOM IN

- 신규 계열사 소개
- 케이디에이
- SIMPAC아뜰리에
- SIMPAC글로벌 동부
- 2024 SIMPAC Special Day 송년 행사 성료

42

NEWS

뉴스 단신

SIMPAC
STORY MAGAZINE



철강 산업 폐기물 속 산화아연 회수 작전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2008년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기술자회사로 시작하여 2018년 SIMPAC의 계열사로 편입된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더스트)에서 아연을 추출하여 산화아연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2개의 공장에서 총 3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가운데,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순도의 습식 산화아연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생산팀 소속 세 명의 직원을 만나 리스텍비즈가 생산하는 제품의 특징과 이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폐기물 속 보물 찾기 2차 더스트에서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이하 리스텍비즈)는 철강 산업의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2차 더스트에 함유된 산화아연(ZnO)을 회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차 더스트에는 다량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으나 납 등도 들어있어 기존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매립되었으나, 자원을 회수하여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RIST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했고 기술자회사였던 리스텍비즈에서 개발 기술을 상용화했다. 2018년 SIMPAC 계열사로 편입된 후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이뤄졌으며,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순도의 산화아연을 납품하고 있다.

리스텍비즈는 제강사에서 나온 더스트에서 1차로 철 성분을 회수한 2차 더스트를 납품 받아 산화아연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2차 더스트 내에 있는 다량의 불순물을 산으로 용해한 후 2번의 정제 공정을 통해 염화아연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염화아연에 염기, 중화, 침전 반응을 거쳐 산화아연 제품을 제조한다.



리스텍비즈가 만드는 산화아연의 특별한 점은?

그런데 리스텍비즈에서 생산하는 산화아연은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 국내 타사에서 생산되는 산화아연은 아연 함량이 높은 원료를 전기로에 태워 생산하는 건식 산화아연으로, 정제 공정이 따로 없어 산화아연 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반면 리스텍비즈의 산화아연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 2차 정제를 거쳐 습식 공정으로 제조되는 습식 산화아연이다. 정제를 통해 6대 중금속 기준치를 유럽의 RoHS 지침에 충족시키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순도를 조절하여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을 거쳐 회수된 산화아연은 고무(타이어), 세라믹, 전자 및 화장품 산업원료, 동물사료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리스텍비즈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함유량에 따라 SC-1, 2, 3, 4 Grade로 구분되는데, 제품별로 그 용도가 다르다. SC-1은 산화아연(ZnO) 순도 97~99%의 제품으로 고무, 세라믹, 화장품, 동물사료용으로 납품된다. 산화아연(ZnO) 순도 90~92%의 SC-2는 동물 사료용으로, 산화아연(ZnO) 순도 90~93%의 SC-3는 제련소 산업 원료 및 고무, 세라믹용으로, 아연(Zn)이 8~10% 함유된 SC-4는 배관 부식 방지 용액 등 산업 원료로 납품된다. 순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이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아연 함량뿐 아니라 농도, 비중, 산도, 색도 등을 조절해 생산 가능하다.



2공장 본격 가동 시작!

2018년 리스텍비즈가 SIMPAC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있었다.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포장 작업을 개선하고자 건조로의 크기를 대폭 키우고, 제품을 포대에 담고 적재하기 위한 지대포장설비, 로봇 적재 설비 등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시간당 작업량을 늘리고 작업자의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에는 2공장이 준공되어 11월 4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설비의 불합리 요소들을 찾아 개선을 진행했고, 사용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2공장에서는 SC-3 Grade의 제품을 하루 약 8톤가량 생산하고 있다. 원료 투입부터 수세, 여과, 건조, 포장까지 8~9시간이면 제품이 생산된다. 리스텍비즈는 기존 연간 5,800톤가량을 생산했는데, 2공장의 가동으로 2025년에는 총 6,70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품위 원료를 사용할 경우 좀 더 쉽게 생산이 가능하지만 기존보다 생산 여력이 늘어난 만큼 필요한 원료의 양도 늘어났다. 그러나 들어올 수 있는 고품위 원료의 양은 정해져 있기에, 저품위 원료로도 더욱 안정적이고 균일하며 순도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고자 연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생산량 및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두의 노력

현재로서는 2공장의 생산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인 가운데, 인터뷰에 참여한 생산팀 김관빈 팀장, 윤현준, 김영주 매니저 모두 1, 2공장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윤현준 매니저는 원료 배합부터 정제, 생산물 품질 관리 등 공정 관리 전반을 체크하고 폐기물 발생량 및 수처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2023년부터 산화아연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매니저는 “공정 개선을 위해 테스트를 한 후 실제 공정에 도입했는데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올 때마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텍비즈가 생산하는 습식 산화아연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디테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신규 업체와 일하게 될 때마다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약품 투입량이나 종류를 달리해가며 테스트를 통해 제품을 개선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설비 개선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재밌고 보람 있다”고 했다. 김관빈 팀장은 ‘2공장이 완공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을 보니 보람차다’며 ‘이제는 거의 안정 단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새로운 공장과 더불어 최고의 기술력과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고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리스텍비즈 임직원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생산팀
김관빈 팀장

생산팀을 총괄하며 작업 물량 및 공정 확인, 조업 지시, 돌발 상황 체크 등을 위해 1, 2공장을 오가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공장 가동 준비와 함께 일이 많아지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체력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생산팀
윤현준 매니저

생산팀에서 원재료 검사 및 제품 품질 체크를 담당하고 있는 윤현준 매니저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 생산팀
김영주 매니저

2024년 입사한 신입사원 김영주 매니저입니다. 생산 스케줄 및 공정 확인, 전기 관련 사항 등의 업무를 보며,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하는 일이 좀 더 많아졌는데, 열심히 배워서 2025년에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되고 심팩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 2024년 신규 입사자 입문교육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SIMPAC 사업장 및 연수원에서
‘2024년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일정이 진행되었다.
2022년 이후 약 2년 만에 진행된 행사로,
그사이 입사한 37명의 직원들이 일정을 소화했다.



맞춤형 인재로의 성장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24년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은 SIMPAC그룹의 주춧돌이자 미래인 신규 입사자들의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까다로운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된 인재들이 조직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고, SIMPAC그룹 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함이다. 3박 4일 동안 ‘계열사 투어’, ‘조직과 개인의 목표’, ‘개인 역량 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돕고 조직 몰입도 및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더 및 동기 간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했다.

계열사 투어 및 최고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더 가까워진 우리

이번 교육은 프레스부문이 위치한 부평의 본사를 시작으로 여의도 사옥을 둘러본 후, 양평 블루비스타 연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포항으로 이동하여 메탈부문 사업장을 견학하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계열사 투어를 하며 각 계열사의 사무동 및 공장동을 전반적으로 둘러봤으며, 이를 통해 각 계열사의 공정과 근무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각 계열사에 방문할 때마다 최고 경영진과의 소통 시간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이번 교육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세션 중 하나였다. 최고 경영진들은 신규 입사자들에게 본인의 신입 시절 이야기 및 조언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지, 커리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SIMPAC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신규 입사자들은 ‘최고 경영진과 얼굴을 마주하고 가까워서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회사 관련 이야기부터 가치 있는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이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함께 식사를 하며 격 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도 전한다.



시간	7/8(월) - 1일차	7/9(화) - 2일차	7/10(수) - 3일차	7/11(목) - 4일차
08:00~09:00	SIMPAC Group 이해 M1. 계열사 투어_프레스부문 (경영진 소통: 심웅섭 사장님)	업무역량 강화 M5. Work Smart Skill Up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방법)	중장기 커리어 M8. 스트레스 관리	
09:00~10:00				SIMPAC Group 이해 M11. 계열사 투어_메탈부문 (경영진 소통: 송효석 부회장님)
10:00~11:00	SIMPAC Group 이해 M2. 계열사 투어_여의도사옥 (경영진 소통: 최민찬 전무님)	조직과 개인 목표 M6. Presentation Skill Up (PREP기법 활용한 보고 스킬)	중장기 커리어 M9. 나의 커리어 그리기	
11:00~12:00				
12:00~13:00	중 식	중 식	중 식	중 식
13:00~14:00	연수원 이동 및 입과 준비 (양평 블루비스타)			
14:00~15:00		조직과 개인 목표 M7. 조별 발표 주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목표: 글로벌 리딩 기업)	포항 이동 (라한호텔)	
15:00~16:00	조직과 개인 목표 M3. 목표 수립&달성 (SMART모델로 목표 수립, 도달하는 방법)			복귀 및 해산 (포항 → 부평, 여의도)
16:00~17:00				
17:00~18:00	석 식			
18:00~19:00	업무역량 강화 M4. 버크만 진단 (진단을 통해 개인의 업무상 강점 파악 및 적용)	Networking & 결속력 강화 리더와 대화 (w 참가자 소속 팀장)	Networking & 결속력 강화 신입사원 Networking	
19:00~21:00				

학습 내용 토대로 조별 발표, 우수 조에게는 상금 수여

이번 교육은 ▲SIMPAC그룹 전반의 사업 및 비전 이해 ▲조직의 목표 및 본인의 역할 인식 ▲개인 역량 강화 ▲신입사원 사내 네트워킹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교육 세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관련된 개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첫째 날에는 6~7명이 한 조가 되어 SMART 모델로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버크만 진단을 통해 개인의 업무상 강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효율적인 업무 방법 및 보고 스킬에 대해 배운 후, 이를 바탕으로 'SIMPAC그룹을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 조가 차례로 발표를 진행할 때마다, 평가를 위해 현장에 자리한 팀장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전했는데, 신규 입사자들의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발표에 감탄하며 격려를 보냈다. 목표 이해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으며 1, 2, 3등을 차지한 조에게는 각 상금도 주어졌다.



개인 커리어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셋째 날에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 스트레스 해소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나의 커리어 그리기' 시간에는 각자의 과거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미래 커리어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개인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계열사 투어부터 각종 입문 교육 세션까지 짧은 시간 내에 타이트하게 진행된 일정이었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규 입사자들은 교육, 시설, 지원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다만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함께하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교훈 삼아 추후 진행될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년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 참여자 3인 Mini Interview

1 자기 소개 2 참여 소감 3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게 된 것 4 프로그램 참여 이후 달라진 점

SIMPAC 프레스부문 전기설계팀 윤현수 매니저

- 1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 윤현수입니다. R&D 연구소 전기설계팀 소속으로 Auto Cad 및 HMI, PLC 제어프로그램을 통한 프레스 전기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입문 교육을 통해 전국 각지에 있는 SIMPAC 계열사들의 역할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3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팀원들과 소통을 통해 팀워크를 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사회 초년생인 저로서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4 SIMPAC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프레스 국내 1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연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닌, 목표를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의 커리어를 그려 나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SIMPAC홀딩스 재무팀 유성빈 매니저

- 1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심팩홀딩스 재무팀 유성빈입니다.
- 2 강의를 통해 회사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노하우들을 배우고,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나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들과의 활동을 통해 타 부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3 여러 부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사의 사업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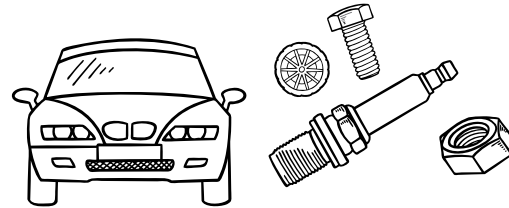
SIMPAC 트레이딩부문 트레이딩사업팀 양가영 매니저

- 1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3일 입사한 트레이딩사업팀 양가영입니다.
- 2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배우고, 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3 신규 입사자로서 다양한 부서의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해당 교육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최고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4 교육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ZOOM IN

신규 계열사 소개 케이디에이

2024년 11월 1일자로 SIMPAC그룹에 합류하게 된
케이디에이의 장영탁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케이디에이’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케이디에이는 자동차 동력 전달 부품을 정밀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약 330여 명의 임직원이 합심하여 연간 약 9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해 여러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최종 공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연간 약 1,600만 대의 완성차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 절반 정도는 케이디에이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디에이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2020년 매출 572억 원에서 2024년 예상 매출 약 1,010억 원으로, 연평균 15% 상승하며 처음으로 매출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케이디에이가 생산하고 있는 부품에 대해 설명 중인 장영탁 사장

1979년 4월 부산 학장동에 협성공업사가 세워진 이후 1993년 12월 경남 김해시 진영 죽곡농공단지 내에 PROPELLER SHAFT ASSY 전문공장을 설립했습니다. 2019년 1월 협성, 화진, 케이디에이 3사를 통합하여 (주)케이디에이로 출범하였으며, 2024년 11월 1일 SIMPAC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김해 진영에 6개의 공장이 있고 미국과 멕시코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디에이는 600여 대의 공작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200만 개까지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난 가공 기술 역량을 갖춘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물론, 20년 가까이 쌓아 온 해외 고객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영업 능력 및 시장 개척 능력, 제품 개발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 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부품들은 GM, Ford 등 북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Tier1인 HITACHI, NDL, AAM, MERCURY, FEINTOOL 등 23개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북미 지역 외에도 중국, 폴란드, 호주 등으로도 수출됩니다.

Q. ‘케이디에이’가 만드는 자동차용 부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해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차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을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케이디에이는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Prop Shaft, Flange, Yoke 등 약 8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C, MCT, Rolling, Grinder, Broaching 등 600여 대의 기계가공 설비들을 이용하여 부품을 정밀가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 가공이 주가 되고 있지만,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늘려 나가고 있는 만큼 저회 또한 트렌드에 발맞춰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약 60만 개의 전기차 모터 부품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생산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총 천만 개 부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고, MES 생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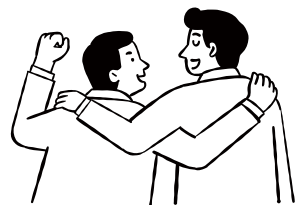


**Q. 얼마 전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 및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오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지 3년 만에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일하다 보니 밤 늦게 컨퍼런스를 진행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힘든 점도 있지만 큰 부침 없이 성장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케이디에이는 오직 수출로만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보니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보람도 큼데요. 케이디에이의 K는 Korea의 약자입니다. 전 직원이 수출 선봉에 선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 1억불 수출의 탑 수상을 목표로 지금처럼 전 임직원이 협동 단결하여 목표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기 마련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래를 위해 원가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리스크 대비를 철저히 하고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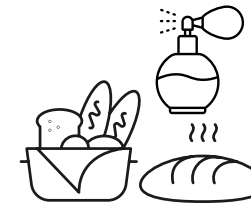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계열사 임직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SIMPAC그룹에 합류하게 되면서 케이디에이 전 직원 모두 더 큰 기대감과 높은 목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SIMPAC에서 케이디에이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직원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케이디에이와 각 그룹사가 협력하여 생산, 영업, 이익 등 많은 방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SIMPAC그룹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디에이와 각 계열사 간에 원활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ZOOM IN

신규 계열사 소개 SIMPAC아뜰리에



SIMPAC아뜰리에에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F&B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기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로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세련되고 향상된 제품들을 제안함으로써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전념할 계획입니다.

SIMPAC아뜰리에가 처음으로 소개할 **영국의 니치 향수 브랜드인 Perfumer H**는 2015년 여성 조향사 Lyn Harris에 의해 론칭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초기 훈련을 받은 후 향수 분야에 진출한 최초의 여성 마스터 퍼퓸머 중 한 명으로, 대기업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창의적인 한계를 넘어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자 Perfumer H를 창립했습니다. 현재 영국, 파리, 홍콩, 대만 일본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중국 진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SIMPAC아뜰리에에는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준비 중이며, 2025년 중순 오픈을 목표로 유통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산공원을 바로 마주하는 건물에 위치하며, 국내의 저명한 건축 및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업계에서는 Perfumer H Korea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스토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Perfumer H의 London Clifford Street Store



Perfumer H의 Taipei Store

또한 SIMPAC아뜰리에에는 F&B 브랜드를 론칭 준비 중입니다. 2013년 덴마크 아루스에서 시작된 로스터리 및 베이커리로 현재는 덴마크, 뉴욕, 오만, 방콕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2025년 중국과 한국에도 론칭 예정입니다. 커피와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이 브랜드는 이미 뉴욕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카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국내 론칭 예정인 가운데, 커피와 빵이 모두 맛있는 카페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기대가 큼니다.

SIMPAC아뜰리에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인력 또한 한정적이기에 임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SIMPAC아뜰리에에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최고의 브랜드 론칭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귀중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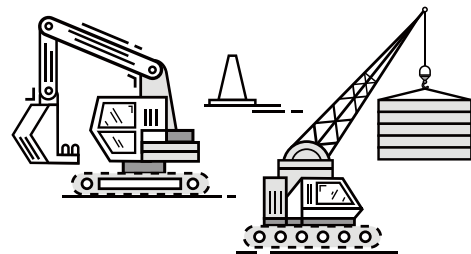
3 ZOOM IN

신규 계열사 소개 SIMPAC글로벌 동부 (SIMPAC글로벌 스크랩부문 창원센터)



SIMPAC글로벌 동부는 경남 최대 규모의 철스크랩 리사이클링 회사 중 하나인 동부스틸의 창원공장을 인수하며 2024년 9월 신규 설립된 신생 법인입니다.

SIMPAC글로벌 스크랩부문 대구센터를 잇는 2번째 리사이클링 센터이며, 한국철강과 세아창원특수강의 철스크랩 공급자격을 보유한 구좌업체로서, 판매처 다변화 및 제품 스펙트럼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84 대표전화: 055-276-3223



4 ZOOM IN

2024 SIMPAC Special Day 송년 행사 성료



지난 12월 17일, 여의도 심팩빌딩 15층 라운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 SIMPAC Special Day 송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하여 여의도 근무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최진식 회장의 격려 인사로 시작된 행사는 한 해 동안 업무에 열정을 다한 임직원 간의 네트워킹 시간으로 이어졌고, 럭키 드로우를 통한 선물 증정식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 SIMPAC NEWS

포항공장 봉사동호회 심봉사,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담은 행복한 밥상 봉사활동' 실시

SIMPAC 메탈부문 포항1공장, 포항2공장



SIMPAC 메탈부문 포항1공장, 포항2공장 봉사동호회 심봉사(심팩봉사단)는 지난 10월 매주 월요일마다 포항시 관내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랑담은 행복한 밥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심봉사는 점심시간 200인분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식을 진행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을 담아 전달했다. 심봉사는 취약계층 이웃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어 드림으로써 안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봉사에 나서고 있다.

매년 심봉사 소속 임직원들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담은 행복한 밥상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사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시간, 프레스부문 풋살 대회 성료

SIMPAC 프레스부문

SIMPAC 프레스부문은 지난 11월 22일 저녁,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풋살 대회를 개최했다. 심웅섭 사장, 남진환 상무 외 약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생산1팀, 생산2팀, 품질경영팀, 연합팀 총 4개팀으로 나눠 대결을 펼쳤다. 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친분을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임직원 가족 및 장학 후원 학생들과 함께한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 성료

SIMPAC 메탈부문 포항1공장, 포항2공장



지난 11월 2일 SIMPAC 메탈부문 포항 지역 직원과 가족,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위해 한 데 모였다. 특히 올해는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의 장학금 후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 봉사를 함께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마음을 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다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더욱 훈훈했던 봉사 현장이었다.

이날 SIMPAC 메탈부문 포항1공장, 포항2공장 봉사동호회 심봉사(심팩봉사단)는 포항시 관내 독거노인 및 차상위 가정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실천했다. 포항시 남구, 북구 일대 5가구 대상으로 1가구 당 500장씩 총 2,500장의 연탄을 나눴다. 2014년부터 매년 회사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는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6가구에 22,600장의 연탄을 기부해 왔다. 연탄과 함께 심봉사 회원들이 급여의 끝전을 모은 돈으로 구매한 햄살과 생필품 등도 함께 전달했다. 이웃에게 연탄 등 생필품을 전달함으로써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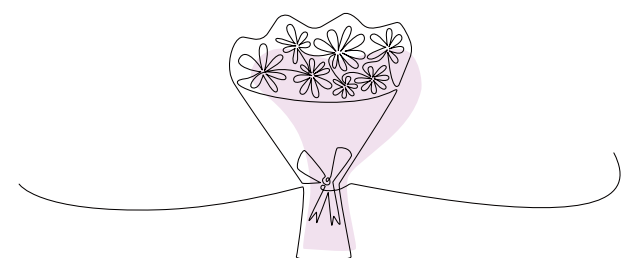
2024 SIMPAC NEWS

우리들의 이야기

결혼을 축하합니다!

SIMPAC HR전략팀 오형석 매니저
SIMPAC홀딩스 이현아 매니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신 만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중요하다

윈스턴 처칠

마음을 나누는 우리

46

찾아가는 클래스

내 손 안의 작은 정원,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In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부문

50

심팩인 플레이스

겨울 축제에서 겨울을 만끽하다

52

안전한 하루

방심은 금물! 끼임 사고 예방하기

54

북클럽

발전하는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추천 도서

56

TREND

‘텍스트합’, 책 읽는 당신이 힙하다!

58

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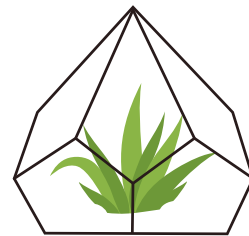
독자 참여 이벤트

SIMPAC
STORY MAGAZINE



내 손 안의 작은 정원,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In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부문



일상이 힘들 때면 많은 이들이 자연을 찾아 나선다. 자연 속으로 캠핑을 떠나거나, 집 안에서 식물을 가꾸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매일같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직원들의 일상에 힐링의 시간을 더하고자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클래스와 함께 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부문 가좌1공장을 찾아갔다. 나만의 '이끼 테라리움'을 꾸미며 내면의 안정감을 얻어갈 수 있었던 특별한 클래스 현장을 들여다보자.



'테라리움이 뭐예요?' 신비한 테라리움의 세계



최근 실내 공간을 식물로 꾸미는 플랜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식물이 주는 푸른 에너지와 식물을 가꾸면서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반려식물'을 키우며 '식집사'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을 키웠다 하면 얼마 못 가 시들어버려 플랜테리어는 엄두도 못 내겠다는 이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밀폐형 테라리움'이다. 꾸준히 관리해주어야 하는 일반 식물과는 달리 관리가 편해 누구나 쉽게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까이 두고 즐길 수 있다. 따로 물을 줄 필요도 없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알아서 작은 생태계를 이루며 몇 년씩 유지가 가능하다. 테라리움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 속에 사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듯이, 테라리움은 흙에서 사는 생물을 키우며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적당한 크기의 유리병 안에 토양을 쌓고 식물을 심어 물을 준 후 밀폐시키는 방식이다. 적당한 온도와 빛만 제공된다면, 유리병 안에서 식물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산되고 천장부에 맺힌 수분이 다시 비처럼 토양으로 떨어져 내리는 과정이 반복되며 내부 환경이 유지된다.

유리병 속 나만의 테라리움 꾸미기

이날 클래스에 참여한 네 명의 직원 중 한 명만 이전에 테라리움을 접해 본 적이 있다고 했고, 나머지 세 명은 테라리움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테라리움을 만들기 전 테라리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강사가 보여준 영상은 영국의 80대 노인이 40년간 한 번도 물을 주지 않고 유리병에 밀봉된 테라리움을 기르고 있다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온도, 습도, 조도를 잘만 관리한다면 이날 만든 테라리움도 몇 년씩 두고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부풀었다.

각자의 자리 앞에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이 놓여 있었는데, 먼저 바닥에 비닐을 깔 후 말라 있는 이끼를 꺼내 물을 충분히 뿌려 불려주었다. 잠들어 있던 이끼를 깨우는 과정으로, 물이 닿으니 이끼가 별모양으로 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끼가 충분히 촉촉해지는 동안, 유리병 안에 모래를 담아 배수층을 만들기 시작했다. 테라리움은 밀폐되어 있는 형태라 물구멍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쪽에 물이 고여 식물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수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평평하게 굵은 모래(마사토)를 깔아주고, 가는 모래가 틈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중간 굵기의 모래를 손가락으로 떠서 뿌려주었다. 그 위에 색깔갈의 모래를 층층이 덮어주면 되는데, 가운데 부분은 식물이 들어갈 공간이 나오도록 움푹 파이게 하고 바깥쪽은 옆면에서 보았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오도록 섬세하게 층을 쌓아주면 된다. 모두가 최대한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유리병을 360도 돌려가며 집중하다 보니, 고요한 가운데 모래를 뜯는 손가락이 유리병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다음은 식물을 심을 배양토를 넣어줄 차례다. 모래층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흙을 살살 덮어준 후 식물을 심고 흙을 다져주면 된다. 테라리움 안에 이끼와 함께 입주하게 된 '그린 피토니아'는 통풍이 안 되는 구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다. 핀셋으로 식물을 집어 살살 흔들어 주며 짧은 뿌리가 흙에 심기도록 했는데, 모양을 보고 예쁜 부분이 한 쪽을 향하도록 배치하면 된다. 남은 자리에는 미리 물에 불려둔 이끼를 심어 주었다. 흙을 가리기 위해 위쪽에 금색 모래를 덮어 정리하고 돌과 귀여운 미니 피규어를 놓아준 후 물을 적당량 줌으로써 테라리움 꾸미기를 마무리했다.

Terrarium

각자의 개성을 담은 이끼 테라리움 완성!

뚜껑을 덮어 테라리움을 완성한 후, 한곳에 모아 다 함께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었음에도 결과물은 딱 보면 자기가 만든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모양이라 각자의 개성이 드러났다.

생산팀 김현진 매니저는 “평소에 캠핑을 좋아해 자연이 주는 위안과 휴식에 대해 느끼고 있었으며, 테라리움은 집에서 간단히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취미라고 생각한다”며 “예전에 이끼 테라리움 꾸미기를 취미로 잠깐 했었는데, 오랜만에 해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조금은 지쳐 있던 일상에서 쉬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영지원팀 최하나 매니저는 “저만의 테라리움을 만들게 되어 뿌듯했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완성작은 사무실에 두어 플랜테리어로 사무실 분위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만든 테라리움 속 식물들이 점점 자라나며, 사무실 또는 집안 곳곳을 푸른 빛으로 물들임으로써 힐링의 기운을 전파할 것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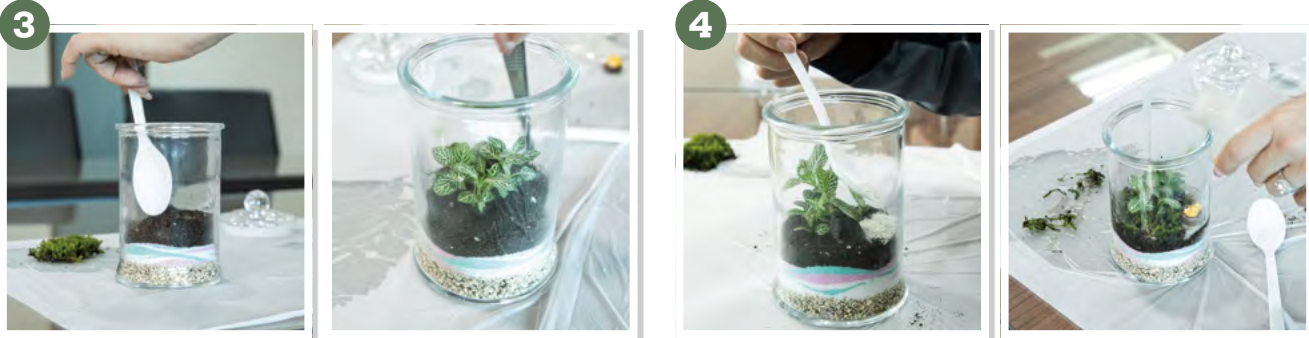


테라리움 만들기



이끼를 물에 불려준다.

유리병에 자갈을 깔아 배수층을 만들고, 병의 테두리 쪽에 색모래를 예쁘게 쌓아준다.



그 위에 흙을 넣고, 핀셋으로 식물과 이끼를 심어 준다.

흙을 모래로 덮고 돌과 피규어 등으로 꾸며준 후 물을 적당량 주고 뚜껑을 닫는다.

이끼 테라리움,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

지구상에는 약 2만 종의 이끼가 서식하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종은 1천 종 정도라고 한다. 이끼는 마르더라도 썩지 않게 수분을 공급해주면 다시 생장해지고, 반대로 너무 습하면 썩어버릴 위험이 있다.

테라리움 내의 습도를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해 초반에는 약간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테라리움 내부가 습하다면 뚜껑을 살짝만 열어 놓았다가 닫아주면 되고, 만약 너무 오래 열어놓아서 건조해졌다면 다시 물을 조금 준 후 덮어놓으면 된다. 유리 벽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고 해서 습하다는 뜻은 아니니 좀 더 지켜보다가 움직이면 된다. 직사광선이 아닌 형광등 밝기 정도의 공간에 두는 것이 좋고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 곳에, 겨울에는 너무 추운 곳에 두지 않도록 한다. 식물이 점점 자라면서 테라리움 안을 예쁘게 채우게 될텐데, 만약 너무 위로만 길어졌다 싶으면 윗부분을 잘라내고, 그대로 옆에 심어주면 잘 자란다고 한다. 식물의 윗부분을 잘라주면 위가 아닌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당히 잘라 모양을 잡아주면 된다.

클래스 참여 소감 & 2025년 새해 소망과 목표



생산팀
김현진 매니저

참여 소감: 예전에 취미삼아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테라리움을 꾸미다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조금은 지쳐 있던 일상에서 쉬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과 함께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소망&목표: 2025년 새해에는 가족들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신재희 매니저

참여 소감: 테라리움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 짧지만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만들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든 테라리움인 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잘 키우겠습니다~

소망&목표: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또한, 행복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품질지원팀
김선종 매니저

참여 소감: 사실 테라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는데, 막상 유리병에 모래와 흙을 담고, 식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심는 과정이 나만의 화원을 만드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 오래오래 키워 나가겠습니다.

소망&목표: 2025년에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최하나 매니저

참여 소감: 평소 알던 반려 이끼(?)라고는 움직이지도 자라지도 않는 '마리모'뿐이었고, 이끼 테라리움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꾸미는 사람에 따라 각자 개성있는 완성작이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소망&목표: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축제에서 겨울을 만끽하다

최근 다양한 매력의 지역 축제가 MZ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특정한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로컬 체험’이 특별함과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철 지역 축제들을 소개한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화천천이 꽁꽁 얼어붙는 매년 1월에 축제가 열린다. 얼음낚시, 맨손잡기 등으로 계곡의 여왕이라 불리는 산천어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바로 회나 구이로 맛볼 수 있다. 낚시 외에도 얼음썰매,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놀이가 펼쳐져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방문객이 많은 만큼 사전에 얼음낚시 예약이 필요하며, 화천에서 숙박하면 무료 낚시가 가능한 시간대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기간 2025.01.11(토) ~ 2025.02.02(일)

장소 화천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



QR코드로 홈페이지 확인하기



대관령눈꽃축제



1993년 시작된 대관령눈꽃축제는 전국 최초의 겨울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눈동이와 함께 즐기는 눈꽃여행’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평창군의 마스코트인 ‘눈동이’와 함께 평창군의 겨울을 즐기는 테마로 구성되었다. 평창의 자연을 담은 눈조각과 겨울철 대관령의 모습을 그려낸 얼음조각을 비롯해 얼음 미끄럼틀, 팽이치기, 컬링, 썰매 등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다.

기간 2025.01.24(금) ~ 2025.02.02(일)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로 135-9
(대관령눈꽃축제 제 1, 2, 3 주차장 이용)



QR코드로 홈페이지 확인하기



평창송어축제



평창송어축제는 1급수 어종과 수달이 사는 오대천에서 진행된다. 송어는 평균 수온 7℃~13℃의 깨끗하며 흐르는 물에서만 사는 까다로운 냉수어종이다. 평창군은 국내 최대의 송어 양식지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어 횡집이 성황을 이룬다. 평창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는 유난히 부드럽고 쫄깃쫄깃해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송어의 주홍빛 붉은 살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감칠맛이 있다. 축제 현장에서는 얼음낚시, 맨손잡기, 어린이 실내 낚시 등 체험이 가능하다. 송어 전문 회센터, 직접 잡은 송어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촌 등 맛있는 음식들도 넘쳐나고 눈썰매, 스노우 래프팅, 얼음자전거, 얼음카트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기간 2025.01.03(금) ~ 2025.02.02(일)

장소 오대천 축제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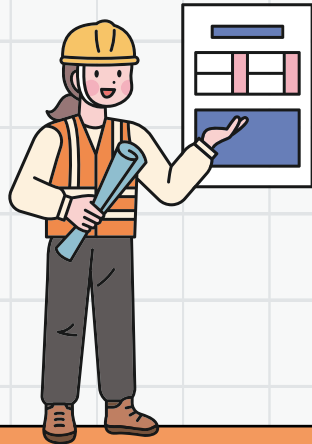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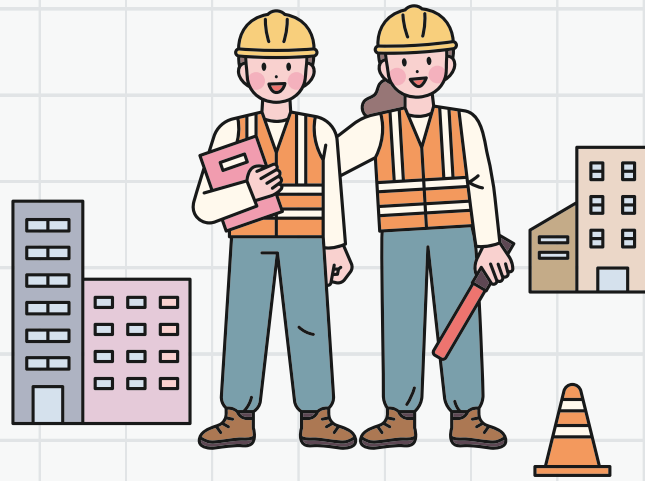


QR코드로 홈페이지 확인하기



방심은 금물! 끼임 사고 예방하기

산업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기계 설비를 다룰 때에는 항상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업 분야 3대 사고 유형 중 하나인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본다.



자칫 잘못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끼임 사고 발생 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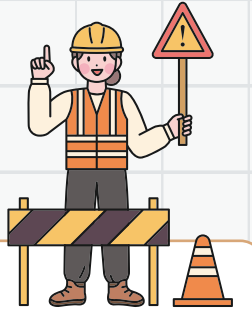
끼임 사고란 기계의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된 부위, 또는 부품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말려 들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추락, 부딪힘 사고와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로, 한 순간에 큰 부상 또는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끼임 사고 주요 발생 원인

- 가동 중인 기계장치에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기계 점검 및 수리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기계가 재가동 되는 경우
- 점검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아 타 근로자가 기동 스위치를 켜는 경우
-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나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아 머리카락이나 의복(면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수칙

끼임 사고는 혼합기, 컨베이어 벨트, 사출 성형기, 분쇄기, 프레스 등 다양한 기계 설비에서 발생 가능하다. 기계 설비 작업 진행 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확인해 보자.



1 방호장치 설치하기

작업자의 신체가 끼임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덮개나 울타리, 슬리브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리를 위해 덮개를 개방했을 때는 회전날이 가동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방호장치에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 끼임 방호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의 위험점 또는 위험 구역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위험 부위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작업 조건 및 작업장 환경에 따라 덮개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하기

기계 정비·수리·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해야 하며, 전원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직접 소지하여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시킬 수 없도록 조치한다. 또한 작동 금지, 작업 중, 점검 중 등의 글자가 적힌 표지판을 설치해 기계 작동을 확실하게 방지한다.

3 비상정지장치 설치하기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의 전원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4 2인 1조 작업 준수 및 작업 지휘자 배치하기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독·관리한다.

끼임 사고 방지 체크리스트

- ✓ 기계장치에 알맞은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잠금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작업장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했는가?
- ✓ 작업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필수 착용하고 있는가?
- ✓ 끼임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자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인력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가?
- ✓ 위험 방지 계획서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가?

발전하는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추천 도서

새해를 맞아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주목! 이번 호 ‘북클럽’에서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기획관리부문 최민찬 부문장의 추천 도서
3권을 소개합니다.



OKR | 존 도어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은 그들만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성과관리 방식 중에서도 OKR에 대해 가장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한정된 자원과 시간 안에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들은 OKR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OKR은 목표(Objectives)와 핵심결과(Key Results)의 약자로 기업과 팀, 개인이 협력하여 목표를 세우기 위한 규약을 의미합니다. OKR은 조직과 개인이 좋은 목표를 세우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정렬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 상향식과 하향식 둘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직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함에 있어서 아래에서부터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가정과 모든 책상에 컴퓨터를 놓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믿었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목표를 세운 것은 그들의 최고 경쟁력이었습니다.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원대한 목표를 세운다면,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 설정 과정에서 따라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이 있는데 첫번째로, 목표의 핵심결과는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OKR에서의 목표는 ‘어렵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100% 달성했다는 것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OKR은 아닌지 생각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심결과는 항상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는 다소 모호할 수 있어도 핵심결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의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핵심결과 수립 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같은 표현은 측정이 불가하므로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생산량 00% 증가, 생산효율성 00% 향상 등)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90%를 완료하면 0.9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두번째 중요한 원칙은 모든 핵심결과의 완성이 곧 목표 달성을 의미해야 합니다. 핵심결과가 모두 달성되었을 때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잘못된 목표 혹은 핵심결과를 설정한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는 관심 범위를 축소시키고, 비윤리적 행동이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있으며, 협력 부재, 사기 저하 등 조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OKR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대응을 위해 OKR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간 단계에서 OKR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는 모든 과업을 달성해낼 수는 없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OKR의 가장 기본은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힘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려면 업무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목표를 자유롭게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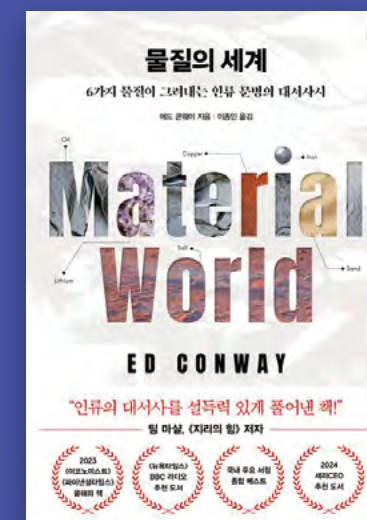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 신시아 몽고메리

이 책은 경영전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도와줍니다.

몽고메리는 이 책의 첫 챕터부터 ‘훌륭한 경영자를 통해 어려운 산업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 역량은 성장 산업이나 구조적으로 더 이윤이 남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옳다’는 뼈를 때리는 듯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리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조직은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그 차별성은 중요한가? ▲그 차별성의 어떤 점이 희귀하고 모방하기 어려운가? ▲내일 중요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있는가?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 위와 같은 관점으로 질문해 보고, 이 질문에 충분히 대답 가능하게끔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봅시다.



물질의 세계 | 에드 콘웨이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소비하고 비물질적인 산업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철, 유리(실리콘), 석유 그리고 리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은 여전히 필수 물질의 확보와 정제에 있습니다. 합금철 사업과 트레이딩, 리사이클링 사업 등 SIMPAC의 자원 기반 제조업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거시적인 이해를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텍스트힙’, 책 읽는 당신이 힙하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독서가 힙(Hip)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SNS상에는 책을 읽는 모습이나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 책 내용을 필사한 노트 등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는 경우가 늘었다. 독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텍스트힙’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자.



TEXT HIP

한강 신드롬과 ‘텍스트힙’ 트렌드가 이끈 독서 열풍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자연스레 대중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강 작가의 책은 당장 구매도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다른 추천 작가를 찾아보고 책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을 찾아 오랜만에 독서를 하게 됐다는 이들도 많다. 독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방문객 수가 직전 해와 비교하여 15.5% 증가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문객 중 70%가 2030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의 독서 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4년 초부터 국내 SNS 상에서 서서히 유행하던 ‘텍스트힙’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된 모양새다. 텍스트힙(Text+Hip)이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멋있다, 개성있다’는 뜻의 ‘힙’을 합성한 신조어로, 말 그대로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멋지다는 뜻이다. 텍스트힙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읽은 책을 SNS에 소개하거나 독서 모임 활동을 하는 등 독서 경험을 공유하곤 한다.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 대신, 책 읽기로 나를 표현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성인 종합독서율은 43%에 그치며 199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뜻이다.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 권수인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0.6권 줄었다. 독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영화, 게임 등을 이용해서(23.4%)’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여전히 우리 사회의 독서량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텍스트힙’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일까?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요즘, 그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극적인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낀 일부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매체인 독서를 선택하게 되었다. 어느새 비주류가 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멋지게 여긴 이들에 의해 ‘텍스트힙’이라는 트렌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독서라는 행위가 주는 지적인 이미지에 더해 남들과는 다른 취미를 과시하려는 욕구, 내가 읽은 책을 통해 나를 표현하려는 욕구가 만나 유행은 더욱 번지고 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러한 열풍은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약간은 허세로 시작했더라도 독서의 경험은 어찌됐든 나를 성장시키기 마련이고, SNS에 #북스타그램 태그를 달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독서에 재미를 붙이고 조금씩 꾸준히 독서량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SNS를 통해 독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책을 좀 읽어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힙’ 열풍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북&오디오북

책을 좀 읽어볼까 싶기는 한데 무슨 책을 봐야 할 지도 모르겠고, 선뜻 책을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에 방문해 둘러보고 종이책을 빌려 보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이 너무 멀거나 책을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찜을 내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북(E-BOOK)이나 오디오북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월정액 도서 서비스로 다양한 책 즐기기

월정액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인기도서를 이북 및 오디오북으로 즐길 수 있다. 월라,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Sam 모두 월 9,900원에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으며 첫 달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오디언 도서관’으로 무료 오디오북 듣기

처음부터 월정액 도서 서비스에 가입하기 망설여진다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무료 이북 및 오디오북 서비스를 확인해 보자. 회원가입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책들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디언 도서관’ 어플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무료 오디오북을 즐길 수 있다. 어플을 다운받은 후 가입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된다.

SIMPAC그룹 사보 독자 참여 이벤트

SIMPAC그룹 사보 2024년 하반기호를 읽고,
책 속에 숨겨진 힌트를 찾아 아래 퀴즈의 정답과 함께
사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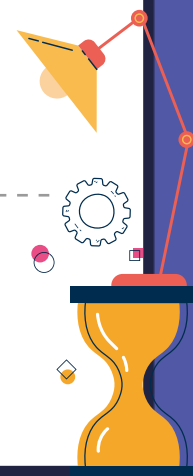
※ 위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2025년 2월 9일 오후 5시까지)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멘토링 클럽'에서는 SIMPAC글로벌 스크랩부문 ■■■ 센터에서 근무 중인 선후배 직원들이 멘토-멘티가 되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빈 칸에 들어갈 도시의 이름은?

2 이번 호 '팀빌딩 워크숍'에 참여한 SIMPAC 메탈부문 직원들은 ■■■■■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격을 크게 9가지로 구분하는 이 검사의 이름은?

3 SIMPAC홀딩스 리스텍비즈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더스트)에서 ■■■■■ 을 생산한다.
빈 칸에 들어갈 단어는?

4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부문 직원들은 '찾아가는 클래스'를 통해 이끼 ■■■■■ 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흙에서 사는 생물을 키우며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지난 호 독자 후기



기획관리부문 HR전략팀 오형석 매니저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탈부문 합금철사업팀 김현정 매니저

타 계열사의 다양한 소식 및 체험활동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리스텍비즈 경영지원팀 이혜진 매니저

직원 참여 콘텐츠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만들 때는 직원들의 참여도를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완성되니 보기 좋네요.

메탈부문 ROLL영업팀 김윤성 팀장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 좋았어요.

리스텍비즈 영업팀 임택인 매니저

여름 휴가 여행지 관련 내용이 알차고,
휴가지 선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메탈부문 포항2공장 생산팀 정성훈 사원

회사 사보를 처음 받아보았는데 기분이 새롭고,
타 공장 현황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메탈부문 생산팀 배진경 매니저

다른 계열사의 일상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프레스부문 서비스사업팀 송성강 매니저

사보를 보며 가족들과 소통하고, 아이와 함께
퀴즈도 풀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스부문 생산팀 전기제어part 이호영 주임

사보를 통해 SIMPAC 계열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획관리부문 PI팀 송치문 매니저

유익한 정보가 많고
SIMPAC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직원 참여 EVENT

SIMPAC人 여러분의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SIMPAC GROUP

참여 방법

위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과 함께 SIMPAC人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업로드 해주세요.
동료들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 퇴근길 풍경, 퇴근 후 취미 생활 및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모습 등 무엇이든 OK!

참여 기간

2025년 4월 30일 까지

당선작 발표 및 상품 안내

당선작은 2025년 상반기호 사보에 공개되며, 상품은 상반기호 발행 후 발송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스타벅스 1만 원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